

申 鴻 均 先生님

이 달에 모신 申鴻均 先生님은 1907年 6月 1日 慶北 義城 新平에서 申氏家의 長男으로 태어나셨다. 先祖가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 瀟鄉한 곳이어서 지금도 先塋에는 많은 墓碑이 세워져 있으며 子孫도 많이 살고 계시다. 先生님이 新學問을 배우기 위해 削髮하고 自進入校한 것과는 對照的으로 日人 巡査가 動員, 強制入學하는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鄉里에서 4年過程을 마치고 때를 같이해서 先親이 滿洲産 蠶繭 장사를 해서 어려웠던 家庭이 潤澤해지면서 서울에 있는 마음에 드는 學校를 進學할 수 있었다.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에 應試合格했다. 4年制를 나온 申先生님은 6年制를 나온 사람만 應試資格이 있는 第一高普를 지금의 入學資格試驗을 거쳐 겨우 榮光을 얻은 것이다. 서울 떠기와 시골 떠기라는 것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先親의 意思에 反하면서까지 日本 留學길에 올랐다. 죽는 것보다 조금은 낫다고 할까, 朝鮮人이라는 筆古로 形容키 어려운 蔑視의 環境속에서의 苦生은 무서우리만치 컸다. 그러나 나막신 가게에 入社하게 된 것을 契機로 眞心으로 熱心이 일했다. 「조선진(朝鮮人)」은 그 당시 蔑視의 代名詞였다. 그러나 申先生님은 最少限 그 “계다야”(나막신 가게)에서만은 “조선진”의 概念을 바꾸어 놓았다.

先親의 強勸으로 日本에서의 계획을 白紙로 돌리고 歸國했다. 그러나 故鄉에서 金融組合에도 있었으나 뜻에 맞지 않아 얼마후 다시 서울로 家出(?)를 해버렸다. 서울거리를 彷徨했다. 技術을 배워 보겠다고 時計店, 金銀房을 기웃거렸다. 마땅치가 않았다.

어느날 高普同窓生집을 찾아갔다. 그는 京城工業高等學校 應用化學科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申先生님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용한 語調로 말했다. 計劃을 斷念하라는 것이었다. 그 理由는 時計修理技術이나 金銀에 彫刻術을 배워서 時計店主나 金銀房主가 되기 前에 또다시 튀워 나와 人生十字路에서 갈길을 찾노라 彷徨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苦悶의 時間을 無意味하게 虛送한 結果가 될 뿐일 거라고 했다. 「그러면 나에겐 죽는 길밖에 없단 말인가?」 「죽는 길만 찾으니 죽는 길밖에 더 있겠나? 살 길을 차져야 살 길이 나올게 아닌가?」 「그 길이 무엇이란 말인가」 「글세 생각해 보세요」.

이리하여 申先生님은 그의 勸告에 따라 이듬해 봄 즉 1931年 3월경에 실시되는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의 入學試驗을 치루기로 했다. 當時 齒專, 藥專, 法專은 다른 專門學校에 비하면 入學이 비교적 容易했다. 그러나 이제는 宿食費調達が 先決問題였으나 이것도 그의 家庭教師 자리를 讓步함으로써 解決되었다. 齒專入學後에는 學費調達が 큰 苦痛이었으며 생가다 못해 세루로이드 眼鏡테를 製作해 보기로 했다. 成功은 했으나 거의 手工에 依하여 만들어졌다.

어쨌든 1935年 3月頃에 卒業한 것은 事實이나 授業料實習費를 支拂안하고도 卒業狀을 받을 수는 없다. 『결국 齒科醫師資格의 免許을 얻어 開業, 오늘에 이르렀는데 도리켜 보니 人間의 因果關係는 참으로 奇妙하기도 합니다. 時計修理士가 되겠다고 간 자가 엉뚱하게 꿈에도 없던 齒科醫師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學校에서 授業를 마치고 나면 家庭教師의 任務를 忠實이 해야 했고 이것을 마치고 나면 밤늦게까지 세루로이드 眼鏡테 製作에 熱中해야 했으니 工夫라는 工字는 姑捨하고 一노트整理도 할 틈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여 進級試驗에 通過되고 卒業試驗에 通過되었는지 나 自身도 모르겠습니다.』

夫人 金末南女史와의 사이에 3男 2女를 두고 계시며 體健 康하시다. 自立精神의 象徴인 申先生님의 萬壽無疆을 빈다.



KUM KANG
Dental Lab

261 - 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종로 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

申 鴻 均 (1906年 6月 1日 生)
堤 川 申 齒 科 醫 院 院 長